

노란 무당벌레 라라

원작자 | 나딘 크리엘, 캐서린 홀츠하우젠, 마사 에번스
글 | 김은파

원작 글 | 나딘 크리엘, 캐서린 홀츠하우젠, 마사 에번스 (Nadene Kriel,
Catherine Holtzhausen, Martha Evans)

원작 그림 | 캐서린 홀츠하우젠 (Catherine Holtzhausen)

글 | 김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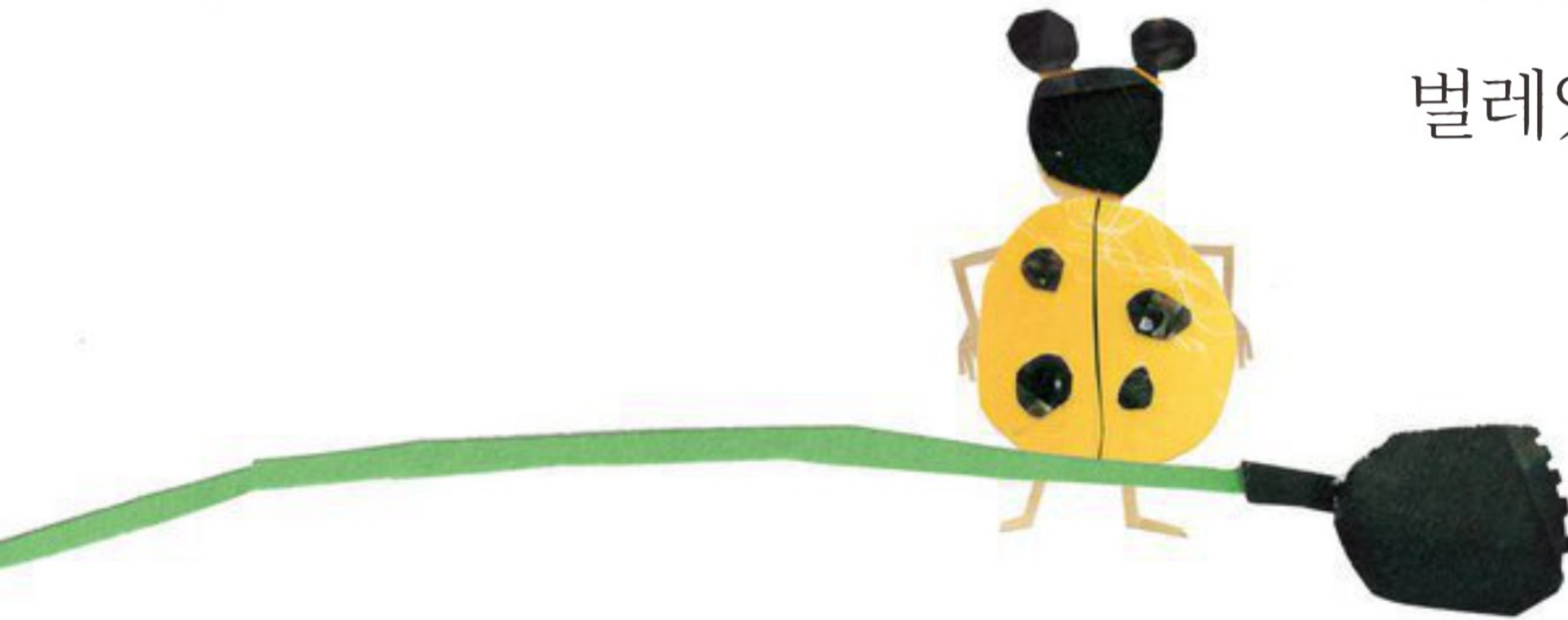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무당벌레 라라는 특별한
벌레였어요.





친구들과 달리 라라의
날개는 노란색이었거든요.



모두가 라라의 노란색 날개를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나비 비비는 라라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마귀 만토는 항상 손을 흔들었고요.



심지어 통명한 거미 세사도 라라를 보면 반가워했어요.



학교에도 라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라라는 다른
무당벌레처럼 되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빨간색 날개를 갖고 싶어요.”

하고 라라는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라라의
날개를 빨간색으로 칠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아무도 라라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라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도 라라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라라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라라의
새로운 빨간색 날개를
알아보지 못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라라를 발견할 때까지 말이에요.
“라라, 너의 예쁜 노란색 날개가 빨간색이 되었구나.”



라라의 친구들은 모두 놀랐어요.

“라라야, 너인 줄 몰랐어.”

“너의 노란색 날개는 정말 특별해.”



선생님이 말했어요.

“라라야, 노란색 날개는
너에게 아주 잘 어울린단다.
시포의 큰 점이나 샬리의 긴
다리처럼 말이야.”



라라는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했어요. 다시 빛나는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개를
잘 닦았어요.



라라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날개를 다른 색으로 바꾸지 않을 거야!’



물론, 가끔 새로운 색깔을
칠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노란 무당벌레 라라” is a derivative of “Lara the Yellow Ladybird” by Nadene Kriel, Catherine Holtzhausen, and Martha Evans,
used under CC BY 4.0.

“노란 무당벌레 라라”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